



Seo June's story

과학에서 교육으로:
NZTC에서 서준의 새로운 여정

학생 프로필

이름: 서준

국적: 대한민국

학업 과정: Graduate Diploma in
Teaching (ECE) (레벨 7)

서준님은 생명과학을 전공한 후 디자인과 브랜딩 분야에서 창의적 경험을 쌓았으며, 그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학원 강사와 청소년 창업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생들과 깊이 교류한 경험을 통해 ‘지식뿐 아니라 삶의 태도를 전달하는 교육’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현재는 뉴질랜드에서 유아교육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NZTC의 Graduate Diploma in Teaching 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NZTC를 선택한 이유

Q1. 여러 선택지 중 NZTC를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해 주세요.

우선 처음 관심 갖게 된 건 친구가 NZTC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정보를 찾게 되었으나, 그 정보들이 NZTC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가진 힘이 있다고 믿는데, NZTC는 뉴질랜드에서 ‘시간’으로 그 가치를 증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이 과정을 통과했을 테고, 여러 사례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쌓여 있을 테니 나도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긴 준비 기간 내내 잘 버텨 주었으면 좋았으나, 어느 순간 의지가 꺾이더군요. 때론 우울하기도 했고, 체력적으로도 단련할 시간이 부족했기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음 두 가지를 되뇌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것을 직면하자.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절망하지 말자.”, “일단 책상에 앉자. 1분만이라도 집중하자.”

이 두 가지 생각으로 몸을 일으켜 시간이 날 때마다 영어 팟캐스트를 듣고, 주말엔 목테스트를 치고, 연습 문제도 풀고, 스피킹을 위해 전화 영어도 하면서 ‘영어 환경’을 만들다 보니 감사하게도 성적이 나와 주어서 이 과정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소식

Q3. \$10,000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안심과 기쁨,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 그리고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게 되는구나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돋고, 그 도움을 받은 이가 누군가를 또 돋듯, ‘자신만 소중히 해라’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세상에 굴하지 않고 나는 누군가를 도우며, 또 도움을 받으며 살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영어 점수 준비의 도전

Q2. Graduate Diploma in Teaching (Early Childhood Education)과정은 영어 요구 조건이 높습니다. 그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유학이란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큰돈이 필요하고, 저는 처음부터 여유로운 재정 상황에서 유학을 결정하지 않았기에 개인 브랜드와 하나의 직업을 더해서 두 가지 일을 하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직장을 퇴근하고 주문 들어온 물건을 만들고 브랜딩을 하고, 짬 내서 공부를 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나를 끝까지 짜내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열정으로 꽤 긴 시간을 잘 버텼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Q4. 2026년 2월에 시작하는 Graduate Diploma in Teaching (Early Childhood Education)과정에서 가장 기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대하는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히 실습이에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역시 다른 배경을 가진 내가 실수는 하지 않을까, 한국에서만큼 적절한 대응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자랑하는 파나우(whānau)처럼 저를 도울 많은 이들이 있을 것이기에 용기를 내곤 합니다.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

Q5. 이 과정을 마친 후,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나요?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표정이 저의 얼굴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그중 웃음이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드러나길 바랄 뿐입니다. 늘 도전 앞에서는 두렵지만, 결국 한 발자국을 떼고 나면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행복해짐을 배웠듯이, 이 과정을 마친 후 저는 좀 더 좋은 어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Q6. 한국에서의 학문적·교육적 경험이 뉴질랜드에서의 학업과 교육에 어떤 힘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전문성은, 당연히 앞으로의 많은 이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족함이 많겠지만 이 부분은 잘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의 다양한 경험이 뉴질랜드에서의 학업과 교육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도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학업적 문화 차이는 분명히 있고, 한국 교육에 많은 단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움’의 영역에서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 부분 또한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있기에 학습자의 입장에서도 좀 더 넓고 다양한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교육 현장에서는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성장한 상태로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Q7. 비슷한 길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나요?

어떤 삶을 살아왔든, 저와 같은 도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이상한 것이라든가, 떨쳐 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전 앞에서 제가 가진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채 도전하는 이보다, 두려움을 지닌 채 도전하는 이가 더 멋있고 강인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먼 옛날 퍼시픽 지역에서 나무배 하나만 타고 새로운 섬을 찾아 떠나며, 부족민들의 안녕을 주고받으며 출항을 앞두었던 보이저들 또한 저희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다른 길을 도전해 본 이는, 역시 뭔가 달라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전과 경험과 감정이 추후 어떻게 작용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닌, 그 두려움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후에는 이 도전의 의미를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길을 도전해 본 이는, 역시 뭔가 달라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전과 경험과 감정이 추후 어떻게 작용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닌, 그 두려움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후에는 이 도전의 의미를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